

## 서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나눔 협약

기부문화 활성화·착한행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구는 7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착한 도시, 착한 나눔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신설된 데 따라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올해 말까지 1층에 디지털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광주사

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배분, 기부금품영수증 발급, 후원내역 공유, 명예의 전당 운영 지원 등 후원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서구는 올해 5월 '착한도시 서구'를 도시브랜드로 선포하고 20여 개의 다양한 민·관 협력 커플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 사업으로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고단백 영양유료 지원, 증중질환 청소년·청년 동행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조선주 기자

## 용봉동 패션 거리 '상인교육관' 건립

120.24㎡ 규모...교육장·상인회 사무실 갖춰



광주 북구는 오는 10월 용봉동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용봉 패션의 거리는 북구 전문상점가로 지정된 상권 구역이다. 북구는 일대 상점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전문상점가 현대화 사업' 공모에 응모, 사업비 6억원

을 확보해 교육관 건립을 추진했다.

상인교육관은 용봉동 제2공영주차장 부지에 120.24㎡ 규모로 조성됐다. 상인교육장과 상인회 사무실, 고객 센터 등 상인들의 자치활동과 고객 편의를 위한 시설이 들어섰다.

북구는 해당 시설이 상인들이 역량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상인들에게 다양한 자생력 강화 교육을 접하는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 광산구, 임곡파크골프장 10일 임시 개장

9월 규모...오는 12월 9일까지 임시 운영

광산구는 임곡파크골프장이 10일 임시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시민의 파크골프 시설 확충 요구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부터 총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임곡동 591번지 일원(웅진교 하부)에 부지면적 약 8400㎡, 9홀 규모로 임곡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2022년 개장한 36홀 서봉 파크골프장에 이은 두 번째 파크골프 전용 시설로, 사무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임시 운영 기간은 12월 9일까지 2개월이다. 휴장일인 월요일을 제외

하고 평일, 주말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건강한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장애인도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지난 6월 사업비 4억5000만 원을 구비로 확보, 서봉 파크골프장 내 약 8300㎡ 9홀 규모의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기 기자

## 광주교육청, 늘봄지원연구사 50명 선발

설명회 개최...내년 3월 공립초등학교 배치

광주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 학교 현장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수행할 늘봄지원연구사 50명을 선발한다.

늘봄지원연구사는 초등학교에서 늘봄지원실 업무를 책임지며, 늘봄 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소속 직원, 방과후 강사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관내 국·공립 초등 교사 중에서 2년 임기로 선발해 임기 동안만 교육연구사 신분을 부여받게 된다. 지원 자격은 초등 교사 근무 경력 5년 이상이며, 기본소양, 역량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늘봄지원연구사는 올해 50명을

선발하고, 내년에 30명을 추가 선발하여 광주 관내 공립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10월 중 선발 공고를 하고, 오는 12월 합격자를 확정해 내년 3월 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7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 늘봄지원연구사 선발·배치·운영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교육청은 늘봄지원연구사가 배치되면서, 교사의 늘봄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주 기자

# 교원 90% “학생 문해력, 과거보다 떨어져”

### “학생 5분의1, 교과서 이해도 힘들어”

### “디지털 매체 과사용이 가장 큰 원인”

“사건의 시발점(始發點)을 설명하는데 학생이 '선생님이 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부자리가 별자리라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어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578돌 한글날을 앞두고 초·중·고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학생 문해력 실태'를 묻은 결과 91.8%는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7일 답했다.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은 절반 가까운 48.2%에 달했다(①5%이하 ②6~10% ③11~20% ④21~30% ⑤31% 이상 등 오지선다).

또 글의 맥락과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

고 답한 교원도 46.6%나 됐다.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은 무려 67.1%였다.

도움 없이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은 30.4%,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을 보기도 곤란한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도 21.4%나 됐다.

학생 문해력 저하의 원인에 대해서는 '스마트폰·게임 등 디지털매체 과사용(36.5%)'이 1위로 꼽혔다. 이어 '독서 부족(29.2%)', '어휘력 부족(17.1%)', '기본 개념 등 지식 습득 교육 부족(13.1%)'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

교원들은 학생 문해력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독서활동 강화(32.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어휘 교육 강화(22.6%)', '디지털매체 활용 습관 개선(20.2%)', '토론·글쓰기 등 비판적 사고 및 표현력 교육 강화(11.4%)' 등은 뒤를 이었다.

학생의 문해력 부족으로 겪은 당황했거나 난감했던 사례도 줄을 이었다.

주관식으로 작성한 답변에는 “쪽보를 ‘쪽발보쌈세트’라고 알고 있었다”, “사건의 시발점이다”라고 했는데 왜 선생님이 욱하냐고 했다”, “사기저하의 ‘사기’가 남을 속이는 사기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등이 있었다.

학부모의 문해력도 문제라는 답변도 종종 등장했다. 한 교사는 “너무 다양한 상황에 학부모도 연관되어 있다”며 “가장 흔한 경우는 안내장도 이해하지 못할 때”라고 했다.

또 다른 교사는 “학부모의 문해력도 (학생에) 영향을 미친다”며 “초

교 5학년 학부모가 등교를 응원, 하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교총은 “문해력 저하는 학습 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와 향후 성인이 된 이후 사회생활에도 부정적 영향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체 문맹률은 1~2%대로 매우 낮다고 하지만 이것이 문해력이 높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 문해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단·분석부터 시작하고 디지털기시 과의존·과사용 문제를 해소하는 법·제도 마련 및 독서, 글쓰기 활동 등을 강화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8%포인트(p)다. /뉴스

## 광주시교육청, 유아 정서·사회·심리 발달 지원사업 추진

연말까지 만 4~5세 50여 명 대상 유아·부모 맞춤 상담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 심리·언어·행동 치료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의 하나로,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사업' 대상을 어린이집 유아까지 확대한 것이다.

올해 사업은 연말까지 만 4~5세 유아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영유아의 건강한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9월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 받았다.

참여자는 시교육청 지정 전문상담기관과 서구유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유아와 부모 상담 등 1인당 최대 8회의 맞춤형 상담을 지원받는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아의 언어와 사회성 발달 장애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부적응 행동과 발달 지연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사업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양육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 전남자치경찰위 여성장애인 범죄 안전 강화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새)전남 여성장애인연대를 찾아 불법 카메라 탐지카드 등 범죄안전용품을 전달하고, 사용자 교육 등 범죄 안전을 위한 소품 전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력, 사이버 성범죄, 핸드폰 명의대여 등 현장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시설 밖에서 길을 잃어 실종으로 이어지는 등의 각종 위험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선 지적 장애 여성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를 정리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טיפ에 크 범죄 ▲사이버 성범죄 ▲스토킹 범죄 교육을 하고 ▲불법카메라 탐지카드 사용법도 안내했다.

이에 앞서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범죄 피해 장애 여성(5명) 집에 홈-도어การ์ด(CCTV)를 설치 지원하고, 전남여성장애인연대평생교육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을 하는 등 범죄 피해 사전 예방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광주·전남 재난문자 3년간 6854건...긴급·위급 19건

최근 3년간 광주시와 전남도가 보낸 재난문자가 685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긴급·위급재난 관련 문자는 0.28%에 불과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시와 전남도가 송출한 재난문자는 685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지역별로는 광주가 ▲2022년 519건 ▲2023년 301건 ▲2024년 8월 145건 등 965건이다. 전남은 ▲2022년 3609건 ▲2023년 1113건 ▲2024년 8월 1168건 등 5889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한 달 평균 송출 횟수는 광주가 18.1건, 전남은 146건에 달했다.

광주는 2023년과 올해 각각 1건과 3건 등 최근 3년 동안 총 4건의 긴급재난 문자를 보냈다. 3년간 전체 발송건수(965건)의 0.4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전남 역시 긴급·위급재난 문자는 2023년 9건과 올해 6건 등 15건으로 전체(5889건)의 0.25% 수준이었다.

전국적으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포함 ▲2022년 5만 1858건 ▲2023년 2만 259건 ▲2024년 8월 1만 4707건 등 8만 6824건의 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 “가을 성어기 중국 불법어선 몰려온다”...서해해경 철통 경비

해경, 성어기 중국 불법 조업 단속 대비 장비 점검



가을철 성어기를 앞둔 7일 오전 신안군 불무기도 앞 해상에서 서해지방해영경청 해상특수기동대가 중국 불법 어선 단속을 위한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성어기를 앞둔 7일 오전 전남 신안군 불무기도 해역에서는 중국 불법어선으로부터 서해를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현장 점검이 시작됐다.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성어기철을 노려 저인망을 이용해 무허가 조업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 행위

를 하는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3009함에 올라탄 서해지방해영경청 해상특수기동대는 함장의 불법어선 발견·투입 시나리오 명령이 떨어지자 일사분란하게 2열 증대를 갖추고, 18명으로 구성된 특수기동대는 불

법 어선 발견시 고속 단정 2척에 나뉘어 승선을 시도한다.

일부 불법 어선은 단속반이 배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배 가장자리에 철제벽·쇠창살을 세우며 강하게 저항하기도 한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과 경찰 모두의 부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제압을 위해 방탄조끼와 총기류·삼단봉 등 진압 장비를 갖췄다.

서해 상공에 뜬 해양경찰 헬기는 해역을 정찰하면서 불법 어선 현황과 위치를 가청해 실시간 함정에 전파했다.

또 조난을 대비한 위치추적 장치(RFID)를 목에 건 뒤 차례로 보호장구, K-5권총, 보디캠 착용 상황을 확인했다.

서해해경청은 올해 상반기 성어기 무허가·정선불응 등을 한 중국어선 7척을 불잡고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성어기 불법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은 2023년 25척, 2022년 25건, 2021년 31건, 2020년 11건, 2019년 75건이다. /김 호 기자

## 내년 전면 시행 고교학점제...전남교육청 '미리보기' 배부

전남고교학점제지원센터 누리집에 탑재

전남교육청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중학생을 위한 안내서 전남 고교학점제 미리보기를 배부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전남 고교학점제 지원 이해,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나의 진로 활동 알아보기와 탐색하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 이해, 고등학교 생활 설계하기 등이다.

교사에게는 학생 상담의 구체적

방안을, 학생에게는 적성과 진로에 부합하는 과목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남고교학점제지원센터 누리집에 관련 자료를 탑재했다. 이처럼 중등교육과정은 “중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